

에이즈예방 감염인들이 앞장

- 제6차 아시아/태평양대회에 다녀와서 -

김성우(가명) | K-plus상담센터, APN*한국대표

아직도 어깨가 뻐근하니 여독이 가시질 않는다. 호주와 한국의 시차가 1시간 밖에 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10시간 정도 되는 비행 시간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않다. 한국 NGO 및 중국-몽고 관련 자료들 13 박스를 가져가느라 호주 세관에서 보기 좋게 6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했다. 첫인상부터가 심상치 않다.

우여곡절을 겪은 뒤 대회가 열리는 멜번행 비행기로 갈아탔다. 멜번의 기후는 생각보다 많이 추웠다. 날씨 변화는 옆집 노치너만큼이나 변화가 심하여 대회가 열리는 6일 내 내 비가 왔다 개었다 추웠다 등등을 반복하며 급기야 나를 독감 속에 훌쩍이게 만들었다. 이번 대회에서의 느낌도 이런 다양한 경험을 겪은 듯 했다.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총회를 지난 2년 전 5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처음 참가한 이래 이번이 두 번째이다. 말레이시아 때와는 달리 이 행사가 호주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았다.

연일 신문을 보고 있지만 이 대회

에 할애하는 방송·신문 기사들은 눈에 띄게 드물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범 국가적 후원과는 달리, 이곳 멜번 대회는 상업적인 냄새가 풍기는 듯 했다.

이번 대회에서 느낀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째가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현상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에이즈 문제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아직 정확한 공식 리포트는 접하지 않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다. 세 번째가 이러한 대회를 통한 활용성의 방안 등이다.

첫 번째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다. 우리는 20세기 최대의 재앙이라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싸우는 평화군이다. 평화군의 목적이 세상 모든 아픈 이를 위해서 혹은 질병없는 사회를 위해서,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기본적 전제는 누구나 동감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번 대회에서도 느꼈

지만 이곳 참여 인원들 모두 어떤 스폰서를 구했느냐에 따라 최고급 호텔에 머무르는 NGO가 있는가 하면 어떤 NGO들은 싸구려 여인숙에서 머물면서 겨우 겨우 끼니도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개발도상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인 것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더욱 더 에이즈의 확산 일로에 놓여있다.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에 따르면 '세계에이즈감시'(MAP)가 최근 유엔의 의뢰를 받아 에이즈 감염 실태를 연구한 결과 아시아권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율이 10년 전까지 저조했으나, 최근 수년 사이에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의 아시아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확산 속도가 급속해졌다는 기사에서도 이 점은 증명된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마약 사용자와 윤락 종사자 대부분이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가 남의 일로 여겨지겠지만 결국 그 문제는 U턴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은 자명한 현상이다. 이들 윤락 여성들의 대부분 소비 대상자는 소위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니까이다.

벌번 대회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듯 거리 행진을 벌였다. 모든 이에게 동등한 치료

권리를, 차별이 없는 치료를, 모든 종류의 사회적 편견에 대해하면서 멜번의 푸른 하늘에 희망의 푸른 풍선을 띄웠다.

두 번의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호주는 여러 면에서 앞서가고 있었다. 에이즈 치료와 예방을 적절히 병행함으로써 최근 에이즈 감염추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급격한 (혹은 완만한) 상승 곡선을 생각한다면 대조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뒷 배경에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작용하고 있었다. 우선 에이즈 환자에 대한 배려와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으로써 그들(감염인) 스스로가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이번 대회에서 느낀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째가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현상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에이즈 문제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아직 정확한 공식 리포트는 접하진 않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다. 세 번째가 이러한 대회를 통한 활용성의 방안 등이다.

다. 또한 많은 동성애자들의 인권단체들이 주도되어 이룩한 성과는 그곳 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방문한 몇몇 단체들에서도 확연히 느껴질 수 있었다.

물론 호주라고 하여도 이러한 일들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이룩한 노하우를 상업적인 포장으로 되팔기까지 하였다. 에이즈 관련 정책 심의에서 당사자(감염인) 한 명 없이 결정되는 우리 나라 현상과는 아주 대조적인 느낌이었다. 더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며 반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도소 운영 정책에 죄수들을 끼워 넣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그렇다! 우리 나라는 에이즈 감염인을 죄인 취급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임을 누구도

인식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감염인 차신조차도.

마지막으로는 '늘 처음처럼'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자 느낌이다. 많은 인권단체들이 아니면 많은 에이즈 관련 NGO들이 이러한 대회를 통해 눈을 두리번거리는 이유가 재정원을 구하는데도 많은 목적이 있다.

대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NGO들로서는 당연

한 문제이겠지만 '늘 시작처럼'의 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바른 사회를 위해 시작했던 그 마음을 말이다.

끝으로 조선후기 백성이 가장 궁핍했을 때 지었던 어무적(魚無迹)이라는 시인의 시구절을 인용하며 마무리 지을까한다. "내가 능력이 있어 이 배를 잠시 빌려 저 배부른 자의 배와 바꿔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이 굶주린 심정을 느낄 수 있으련만,

내 저들 권력자들의 귀를 빌려 우리의 소리를 듣게 했으면, 우리의 처지를 이해할텐데 '갑자기 창녀마저 사랑했던 예수님의 환영이 잠시 가을 햇살에 비쳐 감은 꿈이었을까, 아니면 멜번 대회조차도 꿈이었을까.